



언론의 미래를 나와 함께 만들어가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 기념식·시상식

일시 2024년 12월 19일(목) 오후 5시 30분
장소 천도교중앙대교당(안국역 5번 출구)



민언련 창립 40주년
기념식·시상식

1부

제10회 성유보특별상 시상식

민중의례

성유보특별상과 선정위원회 소개

심 사 보 고 | 이진순 선정위원장(민언련 이사)

수상자 소개 및 시상

수상소감

2부

창립 40주년 기념식

인 사 말 | 신태섭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특 별 축 사 | 민언련 고문, 각계 대표, 정당 대표

축하메시지 | 지역민언련, 시민·언론단체

축 사 | 정찬미 민언련 회원·대의원

김정현 민언련 회원·전 신문모니터분과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영 상 | 민언련이 걸어온 길

창립 40년 선언문 낭독

제26회 민주시민언론상 시상식

민주시민언론상과 선정위원회 소개

심 사 보 고 | 이진순 선정위원장(민언련 이사)

수상자 소개 및 시상

수상소감

제10회 민언련 올해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

올해의 좋은 보도상과 선정위원회 소개

심 사 보 고 | 문현숙 선정위원장(전 한겨레 기자)

수상자 소개 및 시상

수상소감

축하공연

비상결의문 낭독

폐회 선언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신태섭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40년 전 민주언론을 위해 70~80년대 독재정권과 싸우다 해직되신 선배님들께서 민언련을 만드셨습니다. 야만적인 폭압에 맞서 치열히 전개하던 언론자유실천 투쟁을 유지하고 조직하고 확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만적인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선 선배님들의 의연한 투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언련이 그렇게 시작되자 많은 시민들께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뜻을 함께해주셨습니다. 과거 민언련과 함께하셨던 많은 회원님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모든 회원님들, 전·현직 사무처 활동가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함께해주신 모든 단체와 조직들, 그 구성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탄핵으로 쫓겨난 박근혜 정권은 선거에서 언론장악 않겠다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자 시침 똑 떼고 태연히 언론장악과 탄압을 고착·확대시켰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그런 상황에서 민언련 30주년을 맞았습니다. 40주년은 감사와 축하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 고양되고 안정된 상태이길 소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슴이 무겁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퇴행 친위 군사쿠데타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물론 국민의 안전한 삶과 희망, 대한민국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태에 내몰렸습니다. 그 친위 쿠데타는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로 급히 막아 세웠지만, 권력에 눈이 먼 그 부역자들의 국민주권 약탈·파괴의 반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와 인권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민주주의의 필수 전제입니다. 민언련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지금 탄핵정국에서의 싸움이 승리의 결정적 순간을 넘을 때까지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도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발전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회원님들과 함께, 민주시민과 함께, 온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4년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태섭 상임공동대표와 김수정 공동대표(2024.4.26)



2024년 가을 회원의 날 'SJL(Saturday Journalism Live) 민언련' 공개방송&특별토크(2024.10.26)



민언련 40주년 연속토론회 모습(2024.11.22.). 1부 윤석열정권 후반기 공영방송 파괴 시나리오와 대응방안 토론회(왼쪽)와 2부 공영방송 장악에 맞선 언론아싸 평가와 대안플랫폼 전략 토론회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민언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세상을 꿈꿉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군사독재정권에서 정부의 통제와 검열을 받던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해직기자들로부터 창립되어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미디어 정책을 감시하고,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며, 시민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 때 “민주”라는 태명의 아이를 유산하면서 민주가 살 수 없는 세상인데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2010년 민언련 회원이 되었고, 그 해 “희망”이라는 태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광주순례에 참석하면서 민언련 분들을 처음으로 뵈게 되었고, 또 그렇게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힘들고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서 독립적이기 힘들고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오보, 각기 입장에 따른 고의적 왜곡, 편파적 맹신에 의한 가짜뉴스 사이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렵고 그 사이에서 약자들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언론의 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민언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아직은 민언련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언론의 민주화는 단순히 언론의 책임이 아닌, 시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사회 이슈에 귀를 기울이며, 언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민언련의 40주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언론의 미래, 시민이 만든다”는 슬로건처럼 언론이 진실과 궤를 함께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언론을 계속 감시해 주십시오

민언련의 40돌을 축하합니다. 저는 2012~2013년 민언련에서 잠시 활동했습니다. 회비는 2015년부터 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40주년 축하를 맡긴 이유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왜 활동했느냐, 왜 회비를 내고 있냐, 이런 질문에 답을 달라는 의미로 넘겨졌었습니다.

민언련 덕분에 언론 노동자가 됐다, 그런 과장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언론사 입사 스펙으로는 민언련 활동이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노동자가 된 지금의 저를 만드는 토대가 됐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민언련 활동을 하던 때 저는 반값 등록금 시위를 막 거친 터라 감정이 고양돼 있었습니다. 특정 언론은 나쁜 언론이라 생각했고, 좋은 언론이라 여긴 언론사에만 입사하길 꿈꾸기도 했습니다. 신문분과에서 나쁜 언론이라 생각했던 신문 모니터링을 맡았습니다. 매주 하던 일이 좋은 기획기사 분석이었습니다. 쌍심지를 켜고 감시하던 신문에서 좋은 기사를 찾아야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원칙과 기준을 배웠습니다. 진영의 눈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언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2024년 민언련은 제게 긴장감을 줍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10년 전 저처럼 내가 쓰는 기사를 시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민언련은 소중합니다. 이념의 눈이었다면, 우리 편에 관대한 눈이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침병이다.’ 저를 살아내게 하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민언련이 한국 언론을 그렇게 이끌어 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언련에 회비를 9년 냈다고 합니다. ‘고나리’(지나치게 아는 체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한다는 뜻의 신조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으로 저희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민언련의 40년은 사무처 활동가들 덕에 가능했습니다. 감히 2030을 대표해 축하할 기회를 주신 활동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김태진
민언련 고문
(전 민언협 의장, 동아투위 위원)



“언론을 살려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창간한 ‘말’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생기기 10년 전인 50년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먼저 출범했습니다. 이후 민언협(민언련 전신)을 창립하고 당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다시 복직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언론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존 언론매체를 탈바꿈하기란 어려운 일이었기에 새로운 매체 ‘말’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말’지를 통해 언론의 기본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송건호 의장을 발행인으로 ‘말’지를 시작했는데, ‘말’지가 나올 때마다 송건호 의장이 정권에 불려가 시달리곤 했습니다.

하도 번번이 고생하고 끌려다니다 보니 잡혀간 동지들이 나올 때까지 ‘말’지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송건호 의장이 ‘이만한 일로 우리가 발행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이름을 발행인으로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말’지가 계속될 수 있었고 이를 근간으로 한겨레신문도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을 창간하기 위해 송건호 의장이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고, 모금이 이뤄지며 신문사를 만드는 거창한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의지로는 이뤄질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동아투위, 조선투위, 80년해직언론인 등의 의지가 담겨 있었지만 민언협 후배들과 송건호 의장이 앞장섰기 때문에 이뤄졌다고 보기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202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한 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민언련이 40주년을 맞았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이 모든 게 바탕이 돼 한국언론의 올바른 길이 엮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홍범
민언련 고문
(전 민언협 실행위원, 조선투위 위원)



오래 가지 못하리라던 민언련, 40주년을 맞았다

민언련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민언련이 탄생할 때에는 이 단체가 오래 못가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독재정권의 탄압이 심했기에 길면 4~5년 견디거나 그 안에 해체되든지, 더 강한 표현으로 박살나든지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언련이 40주년을 맞았다니 참으로 놀랍고 또 경하할 일입니다. 그동안 민언협과 민언련은 오랜 세월 여러 혹독한 시련을 견디면서 한국 언론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언론이 죽어있던 암흑시대, 우리나라에 언론이라 할 수 있던 언론은 반지하매체인 ‘말’ 지밖에 없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시대, 우리 국민은 민언협이 발행한 ‘말’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실과 진실을 알았습니다.

‘말’지는 프랑스 말을 빌리자면 준 레지스탕스 매체입니다. ‘말’지는 우리 언론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매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언협과 민언련은 오늘날 한겨레신문을 만드는 데 큰 디딤돌이 됐습니다. 민언협에서 일하던 거의 모든 간부들이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하여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민언련은 언론민주화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갔고, 오늘날에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저지 투쟁에 앞장서 열심히 일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퇴진 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랜 역사를 지닌 언론단체답습니다. 세계적으로 4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운동단체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단체로는 해직언론인단체 외에는 민언련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언협과 민언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신 그동안의 많은 일꾼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민언련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일꾼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 옛날 민언협과 민언련에서 일하던 여러 일꾼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동익
민언련 고문
(전 민언협 의장, 동아투위 위원)



언론장악 기도에 맞서 싸워온 역사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일보 해직기자이자 민언련 창립회원인 정동익입니다. 먼저 민언련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민언련 40년은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에 맞서 줄기차게 싸워온 투쟁의 역사입니다.

민언련을 시민언론운동의 본산으로 키워 오신 회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어떠한 언론탄압에도 든든합니다. 창립 4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건투를 빕니다.

박우정
민언련 고문
(전 민언련 이사장)



AI시대 더 창의적 방식으로 역할 하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니 창립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순수한 시민언론운동 단체가 40년의 세월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민언련이 창립당시 표방했던 민주언론의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곳곳하게 실천해왔기에 그런 기적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언련은 한국사회에서 정통성과 영향력에서 가장 독보적인 시민언론운동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언련을 이끌어오신 선후배 동료 활동가들과 민언련을 지원하고 동참해주신 수많은 시민들의 노고와 정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언련이 앞으로도 AI시대의 도전을 맞아 더욱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내면서 민주언론 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계속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조성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전 한국일보 기자)



고비마다 언론운동 중심에 섰던 민언련

민언련 창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민언련 40년의 역사는 이 땅의 언론민주화운동, 언론개혁운동의 산 역사입니다. 민언련은 긴 세월 언론민주화운동, 언론개혁운동을 펼쳐오면서 그 운동의 힘을 대중 속으로 전파시켜서 언론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민언련은 지금까지 중요 고비마다 언론운동 중심에 서 왔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공작, 언론침탈 공작에 대응해서 계속 선도적인 투쟁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올라간 날에도 여의도 광장에서 민언련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민언련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언론을 위한 언론민주화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민언련 창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여러 '새 언론'의 마중물 된 민언련

민언련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고 올 한해 바쁘게도 애쓰셨습니다. 동아투위, 조선투위와 함께 시작해 온 민언련이 오늘날 새 언론의 출범, 한겨레신문이나 많은 언론사들, 특히 뉴스타파를 비롯한 여러 새 언론의 마중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더 계속되어서 한국언론의 신문명을 열어갈 걸 기대합니다. 내년에도 더 역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성한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전 한겨레 논설주간)



또다시 '40년 투쟁'을 다짐하는 자리

조선투위 성한표입니다. 민언련 출범 40주년을 맞아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주시민 한 사람으로서 민언련을 여기까지 지켜내고 키워온 활동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독재부패권력과 유착한 언론권력을 견제·감시하고 언론공공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과제는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염원으로 남아있습니다. 민언련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는 바로 또다시 40년의 투쟁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중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



군사독재 언론탄압·언론장악 고발, 보도지침 폭로

‘민언련’ 하면 저는 ‘말’지를 생각합니다. 또 ‘말’지를 생각하면 보도지침도 저절로 떠오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그 엄혹하던 시절, 매일매일 떨어지던 저들의 명령 ‘이 기사 빠라, 저 기사 키워라’와 같은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을 꼼꼼하게 챙겨 보도한 게 바로 ‘말’지 보도지침 사건이고 그것을 주도한 곳이 바로 민언련입니다. 민언련 지난 40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상황은 참으로 엄혹합니다. 여태까지 고생한 만큼 더욱 고생하는 의미에서 축하보다는 격려와 건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언

전 한국일보 기자
(보도지침 폭로 주역)



‘감시견의 감시견’으로 외길 40년

한밤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미치광이 권력자’ 한 사람의 어처구니없는 내란시도로 대한민국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시민항쟁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윤석열의 내란사태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과 언론의 힘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잔당이 살아있는 한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하여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떠올기는 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엄선포에 이어 포고령 발표, 계엄군의 국회 난입 등을 보면서 내란시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가 40년 전 군사독재시절로 퇴행할 수도 있다는 비관론도 자리 잡았습니다. 문득 기자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사전검열 받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44년 전인 1980년 비상계엄 하에서 서울시청에 마련된 보도검열단을 오가며 계엄군에게 사전검열을 받던 치욕적 모습입니다. 언론을 정권의 홍보도구로 만들려던 전두환 독재정권의 언론학살 과정이 연쇄적으로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 통폐합,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기본법 제정 등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전개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엄격한 언론통제를 시도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허문도의 ‘명언’은 동서고금을 통해 독재권력을 전유물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선배언론인들은 계엄철폐를 부르짖으며 검열 및 제작거부에 들어갔다가 언론현장에서 강제로 쫓겨나 ‘거리의 언론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거리의 언론인들은 민주언론을 꿈꾸며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했습니다. 해직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언론운동협의회(언협)를 구성해 보도지침 때문에 제도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뉴스를 ‘말’지를 통해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민주언론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으로 탈바꿈해 40년 동안 언론운동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언론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권력의 애완견’이라는 비난에 처했습니다.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멸칭으로 비판받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은 이번 내란사태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견’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민언련은 한국 언론이 민주언론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민언련이 지속적으로 ‘감시견의 감시견’으로 이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공동대표



김남석
경남민언련 공동대표



정진호
대전충남민언련 상임위원장



연대의 마음으로 축하한다

건강한 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토대지만 어느덧 언론은 제4부라 불리며 정치와 여론을 좌우하는 권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김건희·명태균의 국정농단을 보도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며 건강한 언론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꼼꼼히 지속적으로 언론을 비판 감시하며 건강한 언론, 독자권의 확대,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 활동한 민언련. 후원해주신 회원분들과 활동가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의 보루가 되길

민주언론시민연합 40년 역사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역사의 격동기마다 언론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언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언론의 보루가 되기 바랍니다.

더 나은 언론 생태계 구축에 역할 해주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디어의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유튜브와 같은 매체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역기능으로 온갖 가짜뉴스가 판치면서, 이로 인한 이념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인 헌법 가치를 구현해야 할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결탁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런 엄혹한 시기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왔듯,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건전한 시민의 목소리를 잘 모아서 더 나은 언론 생태계가 구축되는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이수희
충북민언련 상임대표



시대와 호흡하며 시민언론운동 주축이 되길

시민언론운동의 산역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군사독재시절 언론장악 시도를 폭로하며 창립한 민언련은 1990년대 시민언론운동 단체로 거듭나며 시민의 힘으로 언론개혁을 이루고자 고군분투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민언련이 창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언론권력에 맞서며 사회민주화에도 큰 힘을 보탰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시민의 시선으로 좋은 언론을 발굴해 '시민을 위한 언론상'을 만들어가는 민언련 활동에 연대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름다리나무처럼 단단하고 풍성하게 성장한 민언련이 앞으로도 시대와 호흡하며 시민언론운동의 주축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묵묵히 시민을 위한 언론 이정표를 세워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에서부터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 폭주에 이르기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40년 시간은 언론민주화를 위한 한길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 언론공공성 회복, 시민 미디어기본권 강화를 위한 활동에 전념하며 역량을 쏟아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활동은 미디어민주주의라는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고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과 함께했고, 시대와 함께했습니다. 질곡의 언론에서 정론의 언론으로, 사주를 위한 언론권력으로부터 시민을 위한 민주언론으로 지형을 바꾸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시민을 위한 언론의 이정표를 세웠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발걸음을 응원하며 전북민언련도 힘찬 연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일궈온 40년

2024년 12월, 민언련 40주년을 맞는 오늘도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습니다. “언론의 미래, 시민이 만든다”는 민언련의 40주년 슬로건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시민의 힘으로 일궈온 40년, 언론의 주인인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애써온 민언련에 감사드립니다. 민언련 4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자유를 위한 민언련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먼저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 그리고 제26회 민주시민언론상과 제10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언련은 ‘언론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입니다. 오랜 기간 어린 학생부터 어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언론운동을 펼쳐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쌓아 올린 자랑스러운 언론자유 역사를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언론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아직 멈출 수는 없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포고령이 발표되고 언론인과 언론사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은 계속되고 있고, 언론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도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과제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 본연의 임무입니다. 언론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상 언론자유는 그 어떤 순간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을 위해서도 국민협의체 구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의 자유와 한국 사회 변화의 큰 동력이었던 민언련의 언론운동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자유를 향한 민언련의 그 노력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언련의 창립과 오늘 시상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언련이 정의와 진실에 앞장서 달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군부독재의 탄압에 맞서며, 대한민국 언론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민주언론 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바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12월 3일, 위헌·불법의 비상계엄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탄핵’을 목 놓아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언론인과 시민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다시 암울한 시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언론의 진심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 기념식이 민주언론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이자 언론민주화를 향한 희망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정의와 진실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화 맨 앞에서 흔들림 없이 앞장선 열정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길 맨 앞에서 지난 40년간 흔들림 없이 앞장서 주신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신군부 시절 언론사 통폐합과 비판적 기자 해직, 보도지침을 통한 언론통제 등 정권의 서슬 퍼런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왔던 여러분의 선배님들을 기억합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도록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언론인 여러분은 다시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언론장악 음모를 저지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파면, 책임자 처벌로 내란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국회는 방송4법으로 여러분께 화답할 때입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거부권이 증발된 이 순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임무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방송4법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언론인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언론자유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언련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언론자유를 향한 민언련 대장정에 경의를!

민언련이 창립한 1984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전 구간이 개통된 해이자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이 있었으며,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이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 서울 지하철은 9호선을 넘어 분당선, 수인선, 중앙선 등이 거미줄처럼 연결되고, 2천 불 수준이던 국민소득은 3만 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성장했는데 대명천지 21세기에 다시 '계엄'을 경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을 보면서 민언련이 걸어온 40년 역사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자유를 향한 민언련의 대장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불법계엄을 막아낸 민주주의 연대에 개혁신당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시민의 힘으로 좋은 언론 만들고자 노력한 시간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민언련은 오랜 세월 동안 진보정치의 벗이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을 맞아, 벗의 기념일과 2024년 민주시민언론상, 올해의 좋은 보도상, 성유보특별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론장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 없이 좋은 정치가 불가능하듯이, 그 자체로 또 다른 권력인 언론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의 힘으로 좋은 언론을 만들고자 긴 시간 노력해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는 항상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은 민주주의의 쌍두마차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도 노회찬의 정치를 이어받은 정당답게, 민언련의 동료로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40년 전 해직 언론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여러분께 연대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중한 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그날 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포고령이 발표되었고 MBC가 계엄군 접수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언론인들이 느끼셨을 불안과 절망은 이루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국회로 달려와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분투해주신 언론인분들의 노력 덕분에 다행히 최악의 사태는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군을 동원해 언론인의 펜을 꺾으려고 했던 내란세력의 시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40년 전 군사독재의 암울한 시기에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해직 언론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뜻을 이어받으며 출범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그간 시민의 눈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진실을 추구하며 싸워온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언론개혁을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민언련 진실수호의 힘, 민주주의 지켰다

존경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입니다.

언론민주화를 위해 걸어온 민언련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사태 속에서도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켰고, 이는 민언련이 40년간 언론 감시와 진실 수호에 앞장선 결과라 확신합니다. 민언련의 헌신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언론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의 길에 진보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디어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 응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윤석열 탄핵을 위해 그 누구보다 선두에서 투쟁해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언련 출범 40주년 기념 슬로건 '언론의 미래 시민이 만든다'와 같이 미디어 자유와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에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탄압, 공영방송 장악에 강력히 맞선 민언련

펜을 바로 세우려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절 군부독재권력의 폭력에 맞서 저항선 최전선에서 싸웠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강력히 맞서는데 민언련이 앞장선 결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언론, 민주통일정부, 공정방송이 현실이 될 때까지 민언련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민희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못된 역사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과거로 돌리려는 권력을 견제하고,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힘은 언론에 있습니다. 언론개혁과 언론민주화를 향한 40년의 힘을 믿습니다.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언론민주화와 언론개혁의 주인공은 민언련 회원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저는 '말지 1호 기자, 민언련 1호 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친정 같은 민언련이 벌써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많이 축하드립니다. 1984년 12월 창립해 40년 동안 언론민주화, 언론개혁의 깃발을 내리지 않은 민언련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저는 국회 과학위원장입니다. 당연히 40주년에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하지만 지금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국회를 지켜야 해서 참석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언련 회원분들께서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다섯, 운동권 학생이었던 제가 해직기자 선배들의 새 매체 창간을 위해 젊은 기자를 구한다기에 찾아간 곳이 민언련과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지 기자, 민언련 간사, 민언련 사무총장, 민언련 상임대표로 정말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안티조선운동, 신문시장 정상화, 퍼블릭액세스 활동, 선거보도감시 그리고 회원배가운동까지 언론개혁과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 회원들과 함께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제 인생에서 해직언론인 선배들과 함께 일했던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헌신적으로 일하는 활동가들, 민언련이 커가는 과정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언론민주화와 언론개혁의 주인공입니다.

민언련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그러나 저희들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축하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12월 10일입니다. 창립기념식이 열리는 12월 19일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이 12월 14일 꼭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내야 합니다. 자본과 족벌 기득권 집단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환경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AI가 미디어 분야에 도입됩니다. 이런 기술발전의 악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언련은 계속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저의 자리에서, 민언련은 민언련의 자리에서 언론민주화와 언론개혁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언련 창립 4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도 민주주의 기둥이 되어주길

반갑습니다. 민주당 광주서구갑 조인철 국회의원입니다. 직접 참석하여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념식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언련이 지난 40년 동안 추구해온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은 비상계엄과 언론탄압으로 얼룩진 현 시국에 가장 요구되는 시대정신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40년도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의 기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언련의 40주년 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언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민언련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이훈기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창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민언련은 우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온 살아있는 역사이자, 기자 이훈기를 비롯한 민주 언론인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동아투위, 신군부 언론통폐합 이후 해직기자들이 만든 민언련이 40년이 지난 2024년 계엄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가장 골몰했던 것이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인과 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언론자유를 위해 매일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민언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위해 계속 역할해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날까지 응원하겠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방위 소속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진숙, 박민에 이어 박장범까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장악이 심각합니다. 저 또한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나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민언련과 함께 언론개혁과 언론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민언련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전 민언련 이사장)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 짚어질 역량 충분

1984년은 광주 민주항쟁 이후 신군부의 억압통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언론은 권력의 총견이 됐고, 책은 무시로 판금 압수를 당했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무고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유와 민주를 꿈꾸었던 언론인들과 양심적인 출판인들이 의기투합해 민언련의 전신인 언협을 창립했습니다. 언협은 기관지 <말>을 통해 권언유착의 실상을 알렸고, 독재 권력에 파열구를 냈습니다. 이러한 언협 활동이 1987년 민주화의 불씨가 되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 언협은 민언련으로 개칭하고 시민이 주축이 된 운동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민언련은 언론학교를 설립하고 치열한 언론감시 활동 등을 통해 이 땅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양극화, 지구온난화, 에너지 위기, 인공지능 등 난해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와 언론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오늘, 한국 사회 대표적 시민언론단체로 우뚝 선 민언련은 그 짐을 짚어질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건투를 빕니다.

같은 자리를 지키는 동지로 함께하겠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을 온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40년, 어느 한 시기도 편하고 쉽게 지나올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민언련과 동지하여 함께 건넜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서 힘이 되는 동지가 있어 민주주의를 향한 작은 징검다리를 만드는 일에 지치지 않고 힘을 보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원래 자기 것인 양 착각한 권력자가 온 나라를 위협에 빠뜨리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을 곱씹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 언론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도록 견제·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중요성에 감사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숙명처럼 걸어갈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동지로 함께하겠습니다.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란 그 이후, 변함없는 언론자유의 파수꾼이 되어주십시오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1천 만 관객이 본 영화 속 대사처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니냐는 망상으로 무장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는 2024년은 여전히 비현실적입니다.

국회를 군홧발로 유린한 것은 2~3시간이었지만, 언론인들에게는 윤석열의 약 2년 7개월 집권기간 전체가 저강도 내란 상태였습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시작으로 전용기 탑승 배제, 비판 언론인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국가검열, 이동관-김홍일-이진숙으로 이어지는 극우들의 방송통신위원장 이어달리기, 불법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박만-박장범으로 이어지는 내란 끄나풀들의 KBS 장악사태, 불법으로 점철된 YTN 민영화까지 이게 과연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벌일 수 있는 언론탄압인가 싶을 정도로 저들의 언론통제 내란은 집요하고 파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대착오적 친위 쿠데타를 벌이며 언론과 출판물 계엄사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망동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권 전부터 언론노동자들의 결사체인 언론노조를 콕 집어 ‘뜯어 고치겠다’는 폭력성과 반헌법적 인식만큼 내란범 윤석열의 언론탄압은 언론노동자들의 중단 없는 투쟁과 시민사회 연대, 특히 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존재와 역할에 막혀 결국 패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거와 다른 미디어 환경 속에 알고리즘에 절여진 확증편향이 최고 권력자의 뇌를 집어 삼켰고, 국가 공동체 전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무도한 시간은 바로 잡히겠지만, 우리는 무엇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는지, 또다시 이런 퇴행과 반동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과 고민의 숙제를 동시에 받아 안았습니다.

지난 40년처럼 다가올 40년,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언론자유, 후퇴 없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싸우고 함께 건설하는 든든한 동지로, 죽비 같은 비판을 아끼지는 않는 조연자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언론노동자의 곁을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길을 찾을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자들도 시민과 함께하는 언론의 정도를 걷겠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참다운 민주·민족언론 창조의 가치를 앞세워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민들이 자발적 노력으로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자본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를 아파게 합니다. 플랫폼의 다양한 진화는 편향성과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언론 활동을 옥아매려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발달이 역설적으로 시민들을 혼란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의 혼란을 틈타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더욱 가속화되고 일방적 주장과 강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정보 속에서 시민들이 매와 같은 눈으로 감시하면서 진실한 뉴스를 가려내고 허위 정보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언론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자들도 시민과 함께하는 언론의 정도를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 죽비’로 민주언론의 길 제시한 민언련

안녕하십니까. 방송기자연합회장 박성호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하면 제게는 세 가지로 다가옵니다. 밝은 눈, 큰 목소리, 빠른 발. 민주언론을 위해 달려온 민언련의 창립 40주년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지난 40년간 여러분은 언론개혁과 언론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과 연대하고 투쟁했습니다. 그 용기와 열망이 언론인들에게도 죽비가 되어 민주언론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도 민언련은 언론자유 파수꾼으로서 언론장악 폭주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그런 민언련이 있어 든든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언론인들이 자기역할 해나가게 감시, 응원해준 40년

한국영상기자협회 나준영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하는 인사말을 편하게 건네고 답할 수 없는 시국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일순간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12.3 내란’의 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릴지 모르는 독재의 광기를 생생하게 보고 느끼며,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새내기 대학생으로 학생회실 책장에 꽂힌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발간한 ‘말’지를 집어 들던 날이 제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처음 만난 날입니다. ‘말’지에 담긴 언론과 방송의 민주화,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세력을 고발하는 기사들은 어린 새내기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언론과 언론인들이 올바르게 서고, 자기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꾸짖고, 때로는 든든한 응원자이자 동지가 되어 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40년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써 함께 기억하고 응원해왔습니다.

그 기억과 응원의 마음이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30여 년 새내기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2024년,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 응원봉’을 들고 겨울광장의 빛나는 물결로 가득 채우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40년 걸어온 길들처럼, 곳곳하게 자기의 길을 더욱 크고 넓게 만들어 가길 기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언론자유, 언론과 언론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하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마흔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자격 KBS 이사회의 불법적 사장 임명제청 규탄 회견(2024.10.24)

김세원
한국PD연합회 회장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안녕하십니까 한국PD연합회장 김세원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 제26회 민주시민언론상, 제10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시면서 시작된 해직 언론인들의 울골은 뜻이 더욱 큰 물결로 시민사회 운동단체로까지 커져서 이후에도 계속 한국의 언론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주신 민언련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미치광이 독재자가 군사독재 시절을 재현하려는 듯한 쿠데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힘으로 그런 망동을 제압하였고 또한 이런 것은 항상 그 자리에서 싸워온 민언련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직 갈 길은 멀니다. KBS 등 공영방송은 재원을 빼앗긴 가운데 공정성과 질적인 우수성 또한 흔들리고 있고 TBS 등 방송사는 편향된 특정 정치세력들에 의해 갈거리 찢겨 있습니다. 이제 독재 정권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범할 정권 하에서는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좀 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민언련과 한국PD연합회가 함께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민언련 창립과 시상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민언련의 굳건한 신념과 실천은 희망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김승준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26회 민주시민언론상, 제10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 수상자들에게도 깊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언련은 지난 40년간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 없이 걸어왔습니다.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언련이 선봉에서 보여주신 노력과 헌신은 모든 언론 현업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언론계는 수많은 도전과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와 공영방송의 본질을 흔들려는 움직임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언련이 보여주신 굳건한 신념과 실천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과 의지를 안겨줍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역시 민언련의 뜻과 함께하며,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언론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한 민언련 여정에 무한한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민언련과 언론 고민하는 민주시민 많아지길

언론인이 되기를 바랐던 학생 때, 아무리 기성언론을 들여다보아도 답답한 사회에서 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꼭 막히게 느껴진 언론을 어떻게 읽고, 그 안에서 변화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준 주해와 같았습니다. 시민에게 언론 바로보기를 제안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론환경 만들기에 애쓴 민언련의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민언련과 함께 언론을 고민하는 민주시민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한결같이 투쟁해온 민언련과 함께 걸어가겠다

“우리는 오늘 언론을 박탈당한 캄캄한 암흑시대를 살고 있다.” 민언련의 창립선언문 첫 문장입니다. 오늘의 창립선언문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다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고, 또 이겨낼 것입니다. 언론민주화의 한길에서 민언련은 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냈고, 한결같이 투쟁해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이 배웁니다. MBC본부 늘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



민언련이 지속하는 한 언론은 흔들리지 않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덕분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탄압을 견뎌냈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이 지칠 때마다 민언련은 채찍을 들었고, 때론 따뜻한 격려로 힘을 줬습니다. 민주주의가 계속되는 한 민언련은 지속할 것입니다. 민언련이 지속하는 한 언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40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



언론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 오늘도 거리에서 외친다

2024년 12월, 민언련 40주년을 맞는 오늘도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습니다. “언론의 미래, 시민이 만든다”는 민언련의 40주년 슬로건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시민의 힘으로 일궈온 40년, 언론의 주인인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애써온 민언련에 감사드립니다. 민언련 4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권력·자본에 굴복하지 않은 기자정신을 배우다

1988년 민언련이 발행하는 ‘말’에서 기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언련 선배들로부터 권력과 자본에 굴복하지 않은 기자정신을 배웠고, 그 기반 위에서 오마이뉴스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때 민언련 정신으로 재무장을 해봅니다. 앞서 길을 닦아주신 선배 여러분께, 그 길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헌신해온 후배 여러분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공영언론 지키며 윤석열 퇴진에 앞장선 민언련

민언련 40주년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축하드립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저 암흑한 시기를 민주언론 실현이라는 간절한 염원을 갖고 출발하던 민언련! '말'지 창간과 보도지침 폭로,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민주 독립언론인 한겨레신문 창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민언련!

이후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언론운동으로 재도약한 민언련!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과 공영방송 탄압을 저지하는 기나긴 투쟁에 앞장선 민언련! 마침내 촛불항쟁의 승리를 통해 공영언론을 제자리에 놓는데 수훈을 세운 민언련!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서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된 공영언론을 지키는 투쟁에 헌신한 민언련!

다행히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친위쿠데타라는 결정적 무리수를 두었고,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저항으로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고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데 앞장선 민언련! 이 모든 공덕이 회원 여러분의 간절한 기원에 하늘이 응답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영원한 동무로 흔들림 없는 응원을 보낸다

대한민국 민주언론 투쟁사의 큰 획을 그으며 걸어온 길 40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시민들이 힘겹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공든 탑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 시국에 민언련의 존재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나아갈 길 40년, 묵은 지혜 위에 싱그러운 아이디어를 엮고, 단단한 연대에 기반한 유연한 횡단으로 새 장을 활짝 열어주세요. 저도 민언련의 영원한 동무로 흔들림 없는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랜 벗, 참여연대도 함께할게요

민언련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론 권력 감시와 민주화를 위해 쉽 없이 달려온 40년, 길 없는 길을 내온 노고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더 단단하게 뻗어나가길 기원합니다. 오랜 벗, 참여연대도 함께할게요.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쉽지 않았을 여정, 시민 지지로 역경 넘었다

민언련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한 언론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공공성 회복, 시민 미디어기본권 강화운동에 힘써 오신 민언련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언련은 시민을 위한 언론, 진실을 위한 보도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왔습니다.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언련이 이뤄낸 모든 성과들은 바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민언련이 걸어갈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그 길을 함께 걷는 시민들의 힘과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변함없이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언련의 40년이 보여준 믿음과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정의로운 미래로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4.3 왜곡 바로잡는 민언련, 큰 희망 되었다

민언련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4년 군사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언론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출범한 민언련은 지난 40년 간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의 길잡이가 돼 주셨습니다.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 4·3의 진실을 알리고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힘써주신 민언련의 활동은 저희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언론, 시민과 함께 언론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더욱 더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민언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가만히' 있지 않고 용기낸 해직언론인들 걸음

불혹에 이른 민언련의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언론장악으로 해직된 언론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언론권력

감시를 위해 다시 모여 용기 있는 첫 걸음을 뗀 지 어느 새 40년.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 40년을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국민을

향해 으렁거리던 야수가 드디어 계엄이라는 이빨을 드러냈을 때, 나라를 구한 건 깨어

있는 민주시민들이었습니다.

깨어 있는 민주시민들. 이 깨어 있는 민주시민들이 나라를 구한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며,

40년 동안 깨어 있는 민주시민들을 양성해온 민언련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민언련 존재 자체가 '시민의 대변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격변하는 대한민국의 40년을 언론의 자유와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던

민언련의 존재자체가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위한 시민의 대변인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앞장서서 싸워주신 민언련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론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민언련이

그 중심에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민언련의 투쟁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1984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해직언론인과 출판인들(1984.12.19)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발행한 『말』지 특집호로,
전두환 정권이 언론사에 '시달'한 보도지침을 폭로한
사건(1986.9.6)



제26회 민주시민언론상

민주시민언론상은 언론개혁과 시민언론운동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기리기 위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창립 15주년인 1999년 제정했습니다. 민주시민언론상은 언론인뿐 아니라 언론민주화를 위해 힘쓴 시민 또는 단체까지 추천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위원회

선정위원장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선정위원 **김동기** 한국기자협회 기획국장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유승현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정찬미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역대 수상자

연도	수상자	
1회(1999년)	본상	노동자뉴스제작단
	특별상	오동명(전 중앙일보 사진기자)
2회(2000년)	본상	인권하루소식
3회(2001년)	본상	오마이뉴스
	특별상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4회(2002년)	본상	홍세화 작가
	특별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5회(2003년)	본상	MBC 'PD수첩'
	특별상	오한홍(옥천신문대표)
	심사위원특별상	정락인(중앙일보 비즈넷타임즈 기자)
6회(2004년))	본상	KBS '생방송 시사투나잇'
	특별상	신행정수도건설사수 남면비상대책위원회
7회(2005년)	본상	이상호(MBC 기자)
	특별상	김철수(민중의소리 사진기자)
8회(2006년)	본상	원희복(경향신문 스포츠칸 종합뉴스 부장)
	특별상	월간지 <함께걸음>
	심사위원특별상	황새울 방송국 <들소리>
9회(2007년)	본상	시사저널을 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특별상	KBS '미디어포커스'
10회(2008년)	본상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으로 기소된 누리꾼 24인
	미네르바	
	특별상	KBS 사원행동
11회(2009년)	본상	민중의소리 홍민철, 장명구 기자
	MBC 'PD수첩'	
	특별상	진실을 알리는 시민 모임(진알시)
12회(2010년)	본상	MBC 노동조합(위원장 이근행)
		언론3단체 / 천안함조사결과 / 언론보도검증위원회 (대표위원 노종면)
	특별상	최승호(MBC 'PD수첩' PD)
13회(2011년)	본상	정재은(미디어충청 기자)
	특별상	송경동(시인)
14회(2012년)	본상	MBC 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
	특별상	이정호(부산일보 편집국장)
15회(2013년)	본상	뉴스타파
	특별상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16회(2014년)	본상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특별상	<울산저널>
17회(2015년)	본상	한겨레 <탐사기획팀>
	뉴스타파	<친일과 망각>
18회(2016년)	본상	손석희(JTBC 보도부문 사장)
	특별상	최승호(영화 자백 감독)
19회(2017년)	본상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특별상	정상진(영화 <공범자들> 배급사 옛나인필름 대표)
20회(2018년)	본상	한겨레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취재팀
	본상	KBS '저널리즘토크쇼J'
21회(2019년)	특별상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본상	故 김용균 씨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22회(2020년)	특별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공동수상)	추적단 불꽃
	본상	미디어오늘 <연합뉴스 기사형광고> 특별취재팀
	특별상	검찰기자실 개방 소송단(미디어오늘, 진실탐사그룹 설록, 뉴스타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3회(2021년)	(공동수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본상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24회(2022년)	특별상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고발 기자
	본상	권영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위원
25회(2023년)	본상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특별상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언론탄압 속 뜨거운 용기와 헌신으로 분투한 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진순 제26회 민주시민언론상 선정위원장

2024년은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인 언론탄압으로 시민의 미디어기본권이 크게 위축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반짝이듯, 엄혹한 상황에서 뜨거운 용기와 헌신으로 분투해온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전 국민이 정의로운 촛불 항쟁에 나서는 지금 이 상황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셨던 민주시민언론상 모든 후보들께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공모를 통해 후보에 오른 팀은 모두 11팀(혹은 개인)입니다. 가급적 다양한 분야의 후보가 골고루 수상의 영예를 누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선정위원회는 11개팀 가운데 올해의 좋은 보도상, 성유보특별상 후보와 중복되는 팀을 제외하고 최종후보를 3팀으로 압축하여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의 2인 방통위·류희림 방심위 감시활동>, <방심위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3인>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이 그렇게 뽑힌 최종후보입니다.

<미디어오늘의 '2인 방통위, 류희림 방심위 감시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례 없는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의 실상을 심층 취재하고 17건의 연속기사로 게재했습니다. 미디어규제 기구에 대한 일반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에도 꾸준하고 집요한 취재를 통해 정권의 하수인이 된 미디어기구의 문제를 낱알이 들춰내준 점을 심사위원회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방심위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3인>은 현재 방심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희, 지경규, 탁동삼 씨 세 분입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한 뉴스타파 보도를 다수 언론이 인용 보도하는 것을 막고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 40여 명을 동원해서 100여 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위 세 분은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함으로써 방심위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는 언론통제기구가 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일신의 안위에 연연하지 않고 위법적 청부심의와 반헌법적 언론탄압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언론규제 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단 점을 크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핑크노모어' 캠페인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고정된 성역할을 심어주는 성차별적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장애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혐오와 차별, 인권유린을 조장하는 미디어를 감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시민이 자발적 주체가 되어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미디어리터러시운동의 훌륭한 귀감이 되었다는 점을 심사위원회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해 선정위원회는 언론민주화를 위한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활동'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본 상의 취지에 더 맞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이에 선정위원 만장일치로 <방심위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3인>에 민주시민언론상 본상을, <정치하는엄마들>에 특별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정사유

&

수상소감

선정사유

‘민원사주’ 공익제보로 윤석열 정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탄압 실태를 드러낸 용기를 높이 평가하다

2023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친지·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에 대해 1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9월 5일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에 여권추천 위원 2인의 일방적 표결로 긴급심의를 의결했습니다. 9월 19일과 9월 26일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최고수위 과징금 법정 제재가 의결되었습니다.

9월 27일 방심위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은 뉴스타파 인용보도 안전심의를 왜 회피하지 않느냐”는 글을 올렸고, 게시글 삭제 요구와 인사위원회 개최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해충돌 상황을 알고도 계속 심의에 참여하고, 결국 11월 13일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에 모두 1억 4천만 원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3명의 방심위 직원들은 12월 23일 국민 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해충돌 혐의를 신고한 제보자들은 1년 여간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기는커녕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범죄’라며 민원사주 본질을 호도하는 류희림 위원장에 의해 특별감찰을 받고, 정부여당·보수단체·보수언론 등의 비난을 일선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늑장조사로 시간만 끌더니 이해충돌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2024년 7월 언론에 제보한 사람에 대해 보도 공익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방심위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 ‘셀프조사’에 맡기는 황당한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제보자들의 신고 내용만으로도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가능성이 드러남에도 기관 이첩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심위로 다시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송부해 류희림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며 이해충돌방지법 주무기관으로서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경찰은 민원사주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닌 공익제보자 색출과 탄압을 위한 편파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반하장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공익제보자 3명은 9월 25일 자신의 얼굴과 신분을 공개하며 민원사주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시민언론상 선정위원회는 방심위 구성원들의 양심적 목소리를 대표하여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비리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반헌법적 방송탄압, 위법적 청부심의, 부당한 조직운영 등의 실체를 드러내고 미디어규제 공적 기구로서 방심위 독립성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언론자유 가치를 일깨우는 데 크게 기여한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3인을 제26회 민주시민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수상소감 /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3인(김준희, 지경규, 탁동삼)

평범한 직장인들의 양심적 목소리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2023년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민주시민언론상을 또 받습니다. 지난해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수상소감을 보니 “아마도 언론장악의 참혹한 현장에서 미세한 희망의 움직임을 발견한 분들께서 애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추천해 주셨을 것”이라고 짐작했더군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을 격려해주셨던 민언련과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미세했던 희망’은 지난 1년간 류희림 퇴진투쟁으로 더 뜨거워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인사 보복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탄압이 뒤따랐지만, 이 싸움은 류희림과 공익신고자들 간의 싸움을 넘어 언론자유를 지키는 시민의 헌법수호 투쟁이 되었습니다. 담금질을 통해 강철이 단련되듯,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서 언론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분노는 활활 타올라 정권의 숨통을 겨누고 있습니다.

2024년, 믿기지 않는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바라보면서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류희림을 앞세운 입찰막 언론탄압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선수교체를 해가며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집요함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의 힘을 그들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물러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희를 공익신고로 이끌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창한 이념과 사명감은 아니었습니다. 불법행위를 목격했고, 그것을 조사해야 할 기관에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신고했을 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스로 존재 목적을 부정하고, 경찰이 적반하장의 제보자 색출과 탄압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분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될 줄도, 민언련에서 상을 받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상을 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단지 저희 세 명의 기쁨이 아닌, 언론자유 파괴자 류희림과 이진숙, 윤석열 일당을 단죄하는 더 큰 기쁨의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1980년대 보도지침을 폭로해 전두환 정권을 궁지에 몰았던 선배들을 본받아 류희림의 청부심의를 비롯한 표적·편파·불공정 정치심의를 부끄럽게 여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작게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일터에서 벌어진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연대의 손을 잡아준 동료 직원들에게, 류희림 체제 방심위 잘못에 함께 분노하면서 이 투쟁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정사유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적 미디어 환경 감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하다

대한민국에서 엄마로서 겪는 사회적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2017년 창립된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미디어감시팀의 <핑크노모어> 활동을 시작으로 혐오와 차별적인 미디어 환경을 감시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들이 흔히 보는 만화 속 '성 역할 고정관념'에 주목하던 중 1주일에 3일 이상 TV를 보는 2~5살 유아가 7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접했습니다. 이에 최근 3년간 EBS에서 방영된 만화시리즈 35개 중 23개 시리즈(65%)에 남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표현과 설정을 확인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미디어를 퇴출하고자 시민들의 집단적 성 힘으로 자료를 모으는 아카이빙 프로젝트 <핑크노모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EBS, KBS, MBC 등 공영방송사에 BBC와 같은 '혐오·차별금지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으며, GS SHOP, 이마트몰, 신세계몰, 트레이더스, 네이버쇼핑, 홈플러스, 토이저러스 등 7개 대형온라인쇼핑몰의 장난감 남아/여아 구분 및 '엄마놀이' 항목 시정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댓글 달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조명하는 기사 댓글창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댓글이 달리며 피해자는 물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KBS 2TV <개그콘서트> 부활 소식에 차별 없는 개그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능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며 개인 또는 집단에 차별적 시선을 드러내거나 웃음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장애·성소수자·성·연령 등 차별사례에 당사자 의견을 들었던 '차별과 혐오는 웃음거리가 아니다-TV 예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내용을 보내 <개그콘서트>가 건강한 프로그램으로 부활할 수 있게 힘썼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에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3년 7월 말부터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다수 언론사가 특수교육 시스템 문제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생략한 채 해당 아동의 연행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 사생활, 가족의 인적 사항까지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해 장애혐오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해당 기사를 모니터링하여 형사고발, 인권위원회 진정,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제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등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가능한 조치를 다했습니다.

민주시민언론상 선정위원회는 아동인권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권리를 위한 언론의 자정작용 촉진에 이어 미디어의 사명감과 법적·도덕적 책임을 상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누구나 상처 받지 않는 미디어 환경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미디어리터러시 향상에 힘쓰는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소감 / 이민경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팀장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미디어 환경을 위해 지치지 않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40년 전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지금, 군사독재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창립된 민언련이 수여하는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엄마들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가 사람답게 사는 복지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사회 ●미래세대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이를 출산한 생물학적 엄마만의 단체가 아니라, 아빠·할머니·할아버지·이모 등 돌봄을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양육의 주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모성'이 바로 '정치하는엄마들'의 주인공입니다.

혐오차별 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핑크노모어>를 시작으로 <혐오와 차별은 웃음거리가 아니다> 프로젝트, 세월호 참사 댓글 달기 운동, 영유아 대상 EBS 프로그램 모니터링, 장애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 등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적인 미디어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대형쇼핑몰에서 여아/남아로 나눠진 장난감 분류가 시정되었고 문제적 기사와 방송에 대한 신문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및 등급조정 등과 같은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엔 계엄과 탄핵에 대한 헌법 및 법률 정보를 어린이 청소년들이 알기 쉽도록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에도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특별상을 자양분 삼아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미디어 환경과 당사자 정치를 위해 지치지 않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

제10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은 시민에게 유익한 보도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저널리즘 가치를 지키고자 애쓰는 현장 언론인을 격려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되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매달 직접 모니터로 발굴한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작을 포함하여 시민과 언론인이 직접 추천한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그해 가장 뛰어난 보도를 선정합니다.

선정위원회

선정위원장 **문현숙** 전 한겨레 기자

선정위원 **강우정**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미정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서혜경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광호 노회찬 평전 작가
이정훈 신한대 교수
이흥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정찬필 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
최진용 전 MBC PD

역대 수상자

연도	수상작	
제1회 (2015년)	신문	경향신문 <노동자 올리는 ‘노동법 심판들’>
	방송	JTBC ‘팩트체크’
제2회 (2016년)	신문	한겨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방송	JTBC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제3회 (2017년)	신문	한겨레 <관제데모, 검찰 돈 봉투, 국정원 여론조작 등 적폐청산 관련 보도>
	방송	JTBC <서울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 관련 보도>
	온라인	시사인 <삼성-최순실 커넥션, 장충기 청탁 문자, BBK 및 다스 관련 의혹 보도>
제4회 (2018년)	신문	한겨레·한겨레21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방송	MBC <유치원 감사 결과 연속 보도>
	온라인	뉴스민 <6·13지방선거 경북민심변역기>
	대안미디어	단비뉴스 <환경 시리즈>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
	시사프로그램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쌍용차 30명 죽음의 배후>
제5회 (2019년)	신문	한겨레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방송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온라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대안미디어	팟캐스트 <바꿀래오>
	시사프로그램	KBS ‘시사기획 창’ <임정수립 100주년 특집 ‘밀정 2부작’>
		MBC ‘PD수첩’
제6회 (2020년)	프로그램	KBS ‘거리의 만찬’
	신문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방송	JTBC ‘JTBC뉴스룸’ <이상직 국회의원 일가편법증여 의혹 등 연속보도>
	온라인	미디어오늘 <CJB청주방송故 이재학 PD 부당해고 및 사망사건 관련 연속보도>
	대안미디어	없음
	시사프로그램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혐오·가짜뉴스 극우 유튜버의 상상초월 ‘슈퍼챗’ 돈벌이>
제7회 (2021년)	프로그램	tvN <비밀의 숲 시즌2>
	부문폐지	뉴스타파 <판도라페이퍼스-이재용 페이퍼컴퍼니 설립 확인 등 연속보도>
		한겨레/슬랩 <“무수한 ‘덧글 살인’...성범죄 기사엔 왜 막지 않나”>
		KBS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MBC 뉴스데스크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제8회 (2022년)	부문폐지	미디어오늘 <연합뉴스 기사형광고 실태 폭로 연속보도>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포항MBC 특집 다큐멘터리 ‘새어나온 비밀-Black Water’
		한겨레 ‘살아남은 김용균들 : 2022년 187명의 기록’
		KBS ‘다큐 인사이드’ <다큐멘터리 뉴스룸>
제9회 (2023년)	부문폐지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연속 보도’
		시사인·브이더블유엘 ‘화물차를 쉬게 하라’
		태안신문 ‘허베이스피리트호 태안원유유출사고 5840일의 기록’
		KBS광주 <다큐 인사이드> ‘1980, 로송과 쇼벨’

쿠팡 블랙리스트, 언론장악, 공천개입, 세월호 등 정치·자본권력을 감시하다

문현숙 제10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 선정위원장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유익한 보도를 한 현장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좋은 보도상이 어느덧 10회를 맞았습니다.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작과 공모 추천작을 포함해 모두 55편 가운데 예심·본심을 거쳐 최종 4편을 선정했습니다. 대부분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받은 만큼 모두 저널리즘 가치를 실현한 빼어난 작품이기에 막판까지 선정위원들의 고민이 많은 결정이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4편은 시대정신을 담고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 견제한 보도들입니다.

선정위원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보도는 MBC '쿠팡 블랙리스트 16,450명'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플랫폼 노동자의 반인권 노동환경을 고발한 심층보도로 거대 자본권력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쿠팡은 채용 기피자 명단 작성과 계열사 공유 등 명백한 불법행위뿐 아니라 언론인 명단까지 만들어 비판 언론을 봉쇄하려한 점도 드러나 사회적 영향력과 파장은 더 컸습니다. 웹페이지 <나도 쿠팡 블랙리스트?>를 따로 마련해 시민에게 직접 확인하게 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공익 제보자가 압수수색당하는 불이익과 쿠팡의 본질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추가 보도 주문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폭주가 극심한 가운데 5개 언론사(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시사IN, 오마이뉴스, 한겨레)가 연대하여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 및 보수언론단체 실태를 입체적으로 보도한 언론장악 공동취재단의 '언론장악 카르텔 추적보도'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사간 치열한 경쟁보다 협업을 통한 동시다발적 보도로 언론장악 실체를 밝힌 결과물에 대해 협업 저널리즘의 가치를 드높인 좋은 모델,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여사 총선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연속보도'는 권한 없는 자들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로 보도하고 이 사건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비리를 발굴, 추적한 이 보도는 다른 언론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명태균 게이트, 국정개입 파문으로 확산되는 등 권력감시와 견제를 위한 언론의 주요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일보의 세월호 10주기 특집 '산 자들의 10년'은 우리 사회가 겪은 참사의 아픔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피해자·유가족과 가해자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20개 지역에 흩어져 사는 관련자 93명을 심층 인터뷰해 지난 10년간 어떤 일을 겪었는지 추적하며, 아직도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세월호 이야기를 서사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독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선정사유

&

수상소감

선정사유

‘김건희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군’ 불법 공천개입 세상에 알리며 공론화에 앞장서다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로 보도하고 핵심 연결고리인 정치브로커 명태군 씨와 정부·여당 인사들의 관계, 여론조사 조작, 창원 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을 심층 취재하며 ‘명태군 게이트’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증언이 관계자들의 욕성으로 처음 공개된 뉴스토마토의 9월 5일 보도 이후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산됐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명태군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천을 받아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세비 절반을 받아갔으며, 김 전 의원 소개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면한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기로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수시로 여론조사를 보고한 정황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로 의심받는 명태군 씨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명태군 씨는 이곳을 활용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유력 정치인들과 유대를 쌓아갔습니다. 명 씨는 ‘가짜 응답자’를 임의로 만드는 수법을 활용해 ARS 응답내용을 조작하고 부풀렸으며, 국민의힘 당원의 지지성향 분석 문건을 만들어 불법 여론조사에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2021년 4·7 보궐선거는 물론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를 조작하며 여론 왜곡을 시도했습니다. 게다가 명태군 씨는 창원산단의 입지를 최초로 제안하고 최종 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명 씨 집안사람이 예정지에 토지 수천 평을 매입했으며 명 씨가 투기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후보지에 포함되는지 확인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공천과 포항시장·평택시장 공천 등에 개입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는 총 7건에 달합니다.

뉴스토마토는 정치권에서 숨기고 있던 대통령 부부의 당권개입, 권한이 없는 명태군·김건희의 국정개입 사실을 드러내는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명태군 게이트는 2024년 하반기 정국을 뒤흔들고, 정치권의 민낯이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뉴스토마토는 적극적인 심층취재로 정치비리 의혹을 낱알이 드러내 공적 책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상소감 / 박현광 뉴스토마토 기자

정치권의 민낯 드러낸 ‘명태군 게이트’ 민주주의 소중함 일깨운 사건으로 기록되길

민주언론시민연합 40주년에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받아 영광이고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러나 시국이 시국인 만큼 기쁨보다는 참담함이 앞섭니다. ‘명태군 게이트’ 취재가 윤석열·김건희 씨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그것이 비상계엄으로 귀결됐다는 생각에 뒷맛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2024년 마주한 비상계엄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온전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전, 군부가 판치던 혼란한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계엄’은 30대 중반인 저에겐 사회 교과서에서나 보던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게다가 전시도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죠. 모두들 평온한 일상을 살던 하루였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오직 자신의 정치적 탈출구로 온 나라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겁니다. 다행히 ‘친위쿠데타’는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의 빠른 행동으로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12월 4일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면 국민의힘은 다 죽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사안을 앞에 두고도 ‘정확한 상황은 아직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명태군 게이트’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그리고 개개인 시민들의 ‘표 행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사건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 나고 자라며 공기와 같이 항상 내 주변에 있어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선출한다면 언제든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명태군 게이트’를 통해 정치권의 두 얼굴, 그 민낯을 엿봤습니다. 권력을 잡은 정치인이 공천이라는 권력을 나눠먹고, 나아가 제 배만 불리는 이권에 개입하는 장면을 마치 CCTV로 보듯 목격했습니다.

‘명태군 게이트’를 보도하고 이끌어온 기자로서 작은 바람은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권력의 감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은 정치 참여, 정치에 관심을 쏟는 것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간 지새운 밤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씨 그리고 명태군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가 피로써 쌓아온 소중한 유산인 민주주의를 당신들이 한순간에 퇴보시켰지만, 그로 인해 우리 민주주의는 더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선정사유

5개 언론사 협업취재 연대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실태와 연결고리 추적해내다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시사IN, 오마이뉴스, 한겨레 5개 언론사가 연대한 언론장악 공동취재단은 협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과 보수언론단체와 연결고리를 심층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의 이사 추천권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방통위를 장악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꾸리고 나아가 사장까지 교체해 공영방송 보도를 좌지우지하려 시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향한 노골적 사퇴요구가 반복됐고, 정부·여당을 비롯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고발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면직됐으며 뒤이어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방문진 새 이사 선임 집행정지로 임기 연장) 등 기존 공영방송 이사들이 잇따라 해임됐고, 김의철 전 KBS 사장까지 물러났습니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보수언론시민단체에서 활약했던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언론장악공동취재단이 분석한 윤석열정권의 보수단체와정부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 관계망 지도에 따르면 정권이 언론정책을 움직이는 과정엔 특정 집단과 세력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름의 보수단체들은 ‘새미래포럼’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중심으로 뭉쳤고, 이곳 출신들은 언론장악첨병역할을 수행하며 정권 지지세력이자 인력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공언련은 검찰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감사원 청구 등을 통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흔들며 끌어내리고, 이진숙·김장겸·김백 등 공언련 전·현직 인사들은 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원, YTN 사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 미디어 기구 요직에 포진했습니다. 이들은 방송심의에도 적극 참여해 공영방송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언련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고, 공언련 출신 심의위원들이 정부 비판 보도에 무더기 징계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파성 지적’ 의견을 심사 회의록에서 삭제한 뒤 보수단체 지원에 적극 나섰으며, 보수단체는 대통령실을 통해 특정 언론사 및 기자를 고발하라는 지시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장악 공동취재단은 언론사의 벽을 넘는 공동취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문제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보수언론단체들과 연결고리를 세밀하게 분석해 언론장악 밑바탕을 추적했습니다. 이어 5개 언론의 동시다발적 보도로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언론사 간 연대가 돋보인 보도로 언론장악 이슈 공론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상소감 / 언론장악 공동취재단

언론사 울타리 넘은 협업 프로젝트, 언론전체 신뢰도 높이고 세상의 변화를 꿈꾸다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시사IN,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5개 언론사가 공동취재팀을 꾸렸습니다. 언론사가 울타리를 넘어 시작한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잘 훈련된 기자들이 엉덩이 떼고 발로 뛰어 취재하면, 노련한 베테랑 기자·국장들이 검증해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시작해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동취재팀의 첫 기획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를 추적 보도하는 ‘언론장악 카르텔’ 시리즈입니다. 처음 기획안이 구성됐을 때 ‘이 혼란한 정국에 한가한 소리만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까 걱정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장악 논란이 불거진 만큼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사 인사 및 재원을 흔들어 언론을 장악하면 그 부작용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독자와 시청자, 우리 사회에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언론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취재팀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작업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곳곳에서 주요 선수로 등장하는 인물과 시민단체들을 연결해 네트워크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 단체와 소속 인물들은 대선에선 핵심 지지층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언론기관장이나 주요 보직에 잇따라 배치되는 등 언론 분야를 움직이는 특정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려져 있던 어두운 역사도 공동취재팀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세력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고 관변단체로 활동했다가 이름만 바꿔 등장한 사례가 확인된 것입니다.

최근 언론사마다 탐사심층 기획 부서들이 없어지거나 인력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가성비’ 때문입니다. 대안 미디어는 우후죽순 생겨나고, 뉴스를 찾아 읽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기자가 매일 당장 ‘핫한’ 뉴스를 눈길 가는 제목으로 쏟아내는 편이 나을지 모릅니다. 이런 때 공동취재팀은 시대를 역행하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오랫동안 품 들여 취재하고 검증해 뉴스를 내놓는 시스템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언론은 탄탄한 신뢰 자본 위에 서야 지속 가능한 산업입니다. 공동취재팀은 좁게는 5개 언론사, 넓게는 언론계 전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탐사심층 기획만이 또 공동취재팀만이 언론의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좋아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공동취재팀이 변화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알아봐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동취재팀의 역할, 언론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선정사유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세월호 참사, 93명의 인터뷰로 담아내다

한국일보는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를 다양한 관련 인물과 이야기로 담아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취재에서 벗어나 2개월간 서울, 부산, 인천, 강원, 광주, 경기, 경북, 전남, 제주, 충남 등 20개 지역에 흩어져 사는 관련자 93명을 인터뷰했습니다. 피해자와 진실을 밝히려 한 이들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진실을 숨기려 한 이들과 범위를 넓혀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면밀히 추적해 그들의 이야기를 소상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수사·재판과 세월호조사위원회 기록물은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쓴 회고록 등 서적까지 분석해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세월호 참사'의 이야기를 폭넓게 전했습니다.

참사 이후 선원·해운사의 거의 모든 관계자는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해경과 고위공직자는 소수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으며 사법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요구한 '책임자 처벌'이 책임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들에게만 머무른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참사 그날 책임자들의 저울은 공정했는지를 되짚었습니다. 돈 욕심에 눈이 먼 선사, 승객을 버린 선장과 선원들, 무능했던 해경 지휘부, 책임을 회피한 청와대와 유족을 사찰한 정보당국까지 정책에 비해 한없이 가벼웠던 그들 죄값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책임을 단죄하는데 실패한 현실을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정리해 세월호의 역사가 바로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취재 내용을 일반 기사 형태가 아니라 소설 작법으로 풀어내 독자들이 세월호 이야기에 들어서는 문턱을 낮춘 점도 돋보였습니다. 영상과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해 기사의 주요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일보는 기사가 실린 홈페이지와 포털뉴스, 영상을 올린 유튜브 댓글창을 모두 닫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인신공격성 댓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차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게 언론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상처인 세월호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해 올해 10주기를 맞은 세월호가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도록 환기했습니다. 기존 참사보도 속 정형화된 피해자들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면적이며 다양한 인물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다시 돌아볼 계기를 제공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상소감 / 한국일보 세월호 참사 10주기 특별기획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게,
'돕는 보도'를 쉬이 그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읽히는 기사를 쓸 것인가.' 세월호 참사 10주기 특집기획팀이 맞닥뜨린 첫 질문이었습니다. 세월호란 세 글자를 어떤 이들은 마음이 아파서 외면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기사감과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을 설득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참사가 '내 일일 수 있다'고 공감하게 하자. 그래야 다소 복잡한 10년을 다시 읽어보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 물꼬를 터주는 기사를 써보자고 팀원들의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주목했습니다. 더 명확히는 '산 자들'에 집중했습니다. 생존자, 유족, 세월호 선원, 해양경찰, 참사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 다양한 관련자 93명을 2개월 여간 만났습니다. 이들의 10년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려 했습니다. 한 달 꼬박 기사를 썼습니다. 몰입도를 높이려 소설 같은 내려티브 형식으로 그 세월을 엮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족의 삶을 담백한 시선으로 담은 영상과 가해자들이 정당한 죄값을 받았는지에 질문을 던지는 인터랙티브로 활자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독자들이 '그들'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해주셨습니다.

보람되나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이 여전히 막막합니다. 정부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마련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안(2022)' 이행 여부를 매년 연말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보고 내용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를 압박해야 할 국회도 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언제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겨울이 국회에 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나. 다시 질문 앞에 섰습니다. 얼마 전 노벨문학상 수상 현장에서 진행된 한강 작가의 강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작가는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하며 그런 순간을 때때로 느꼈다고 합니다.

언론의 가치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도록 그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12주기, 그리고 44주기가 되는 그날에도 듣고 또 들으며 부단히 써 내려간다면 말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한순간에 서 있다는 생각을 매일 하는 요즘입니다. 1984년 독재정권에 의해 해직된 선배 언론인들이 모여 시작한 이곳,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한 그 힘으로, 저희 팀원 모두 쉬이 그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게 지지해주신 한국일보 구성원 모두와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정사유

사회적 약자인 플랫폼 노동자 탄압한 쿠팡의 반노동·반인권 부당노동행위 고발하다

MBC는 쿠팡이 2017년 9월부터 물류센터 노동자 1만 6,45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PNG 리스트'를 만들어 노동권을 침해하고 채용에 악용해 온 사실을 단독보도하고, 쿠팡의 반노동·반인권 문제와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쿠팡의 언론 압박을 구체적으로 고발했습니다.

MBC가 공개한 쿠팡의 기피 직원 명단인 'PNG 리스트'는 1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와 사유가 적힌 블랙리스트입니다. 쿠팡은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PNG 리스트'를 작성·운영해왔는데,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배제시키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PNG 리스트'는 쿠팡의 기준에 따른 '문제 될 사람'을 선별해 내기 위해 제작됐으며 노동조합원 20명을 포함해 기자·PD 등 언론인 10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노동인권이 무시된 최악의 쿠팡 근로환경이 언론의 탐사취재로 속속들이 공개되자 취재를 막기 위해 명단을 만들어 악용한 것입니다. 보도 직후 쿠팡은 '출처 불명의 자료'라며 존재 자체를 부인했는데요. 이후 MBC가 추가 폭로로 거짓을 밝혀내자 '내부 기밀이 유출됐다',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라며 억지 주장을 내놓고 내부 고발자와 취재기자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MBC는 전화 및 심층 인터뷰로 피해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를 밝혀내고, '단기직 채용 담당자'였던 공익 제보자를 통해 별다른 검증이나 사유 없이 블랙리스트에 이름 올리고 피해자가 양산된 쿠팡 채용의 문제를 낱알이 드러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취업 방해'를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사용하면 안 된다'고 짚어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본사와 계열사를 통해 공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도 coupang 블랙리스트?> 페이지를 마련해 시민이 직접 블랙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했으며 연도별·센터별 등재 인원과 블랙리스트 사유, 쿠팡 뉴스룸에 보낸 공개 질의서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한 점도 돋보였습니다. MBC 보도 이후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쿠팡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MBC는 2개월간의 꼼꼼한 취재를 통해 국민기업, 글로벌기업을 자처하는 쿠팡이 부당한 명단 작성으로 사회적 약자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인)의 자유까지 침해한 중대 범죄를 밝혀냈습니다. 사기업의 불법적 권력남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자본권력 감시를 위한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수상소감 / 차주혁 MBC 노동전문기자

약자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권력의 침묵에 맞서는 저널리즘의 길을 걸어가겠다

쿠팡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인사관리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1만 6450명의 삶을 기호와 숫자로 바꾸고, 노동자를 철저히 통제하려 했던 반인권적 시스템의 민낯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데이터 뒤에는 박탈당한 권리와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하나하나의 삶을 추적했고, 노동자들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까지 84일, 긴 여정이었습니다.

'PNG 리스트' 단순한 기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노동자를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고 배제한 시스템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증거이자, 노동 약자를 겨냥한 구조적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명단에 오른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고, 재취업의 기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는 법과 제도가 지켜주지 못한, 노동자들의 비통한 현실입니다. 감독기관은 침묵했고, 법은 무기력했습니다. 대기업의 권력은 그 틈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손쉽게 짓밟았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은 숫자로 전락했고, 그 속에서 삶은 통제와 배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조적 방관과 부조리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쿠팡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취재기자들과 내부 고발자를 상대로 '로켓 고소'를 날리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할 이유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권력의 겁박은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침묵을 강요할수록 진실은 더 선명해지고, 더 무겁게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취재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노동자와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를 마주했습니다. 데이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목소리는 뜨거웠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려 한 그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끝까지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데이터로 시작된 취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전하려는 그들의 낮은 목소리가 이 보도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조의명, 김건휘, 정혜인 기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대기업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추구한 이들의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이 보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MBC 뉴스룸과 제작진의 헌신적인 지원은 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약자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권력의 침묵에 맞서는 저널리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진실은 기록될 때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10회 성유보특별상

성유보특별상은 이룰태림 故 성유보 선생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와 평화·통일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2015년 제정되었습니다. 故 성유보 선생은 1968년 동아일보 입사 후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10·24 자유언론실천'에 앞장서는 등 언론자유운동과 반독재민주화운동, 평화·통일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성유보특별상위원회는 겨레하나, 뉴스타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희망래일 등 8개 언론·통일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관단체입니다.

선정위원회

선정위원장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선정위원 **김동기** 한국기자협회 기획국장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류승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유승현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유영주 희망래일 상임이사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정찬미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역대 수상자

연도	수상자
1회 (2015년)	미디어몽구(1인 미디어 활동가) 김운성·김서경 ('평화의 소녀상' 조각가)
2회 (2016년)	김종술(오마이뉴스 시민기자)
3회 (2017년)	소성리 할매들(사드배치를 반대한 평화활동가)
4회 (2018년)	진천규(기자·통일TV 발행인) 서지현(검사)
5회 (2019년)	유지은(대전MBC 아나운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6회 (2020년)	故 이재학 PD와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PD 대책위원회 경기평화교육센터
7회 (2021년)	뉴스민
8회 (2022년)	오카모토 유카('표현의 부자유전' 도쿄실행위원회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제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9회 (2023년)	아덱스저항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시민이 만드는 공영언론의 상징 ‘방송인 오윤혜’, 국제적 평화연대 중요성 보여준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이진순 제10회 성유보특별상 선정위원장

故성유보 선생은 박정희 독재의 언론탄압에 맞서 ‘10·24 자유언론실천’에 앞장서는 등 언론자유운동과 반독재민주화운동, 평화·통일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성유보특별상은 선생의 삶을 기리고 그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된 상으로, 언론민주화와 평화통일 분야에 크게 기여한 팀 혹은 개인에게 시상하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성유보특별상 선정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추천된 9개 후보 가운데 엄정한 검증과 토론을 통해 1차적으로 <언론아싸 출연진과 스태프>, <방송인 오윤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4개 팀으로 수상후보를 압축하고 각 후보의 기여도와 사회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언론아싸>는 2023년 8월 3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방송되고 있는 유튜브채널로 KBS, MBC, YTN, TBS 4개 공영방송 노조와 시민의 소통창구가 되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연대활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유보특별상 주관단체인 민연련이 <언론아싸> 기획과 제작을 맡고 있어 언론아싸 출연진과 스태프를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연련 측 선정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언론아싸> 첫 회부터 1년 넘게 진행자로 활동해 온 오윤혜 님은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복잡한 언론상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시선을 가감 없이 반영하여 소통 문호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그간 재능기부 차원에서 헌신적으로 제작에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성유보특별상 수상자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었습니다. 특히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공영언론’의 의미를 상징하는 인물이란 점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24년 10월 파주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킨다는 판단 아래 이를 저지하는 평화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평화정착을 위한 풀뿌리운동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해 226개 단체가 함께하는 연대체로 전쟁 종단을 요구하며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이 현재진행형의 심각한 참극인데, ‘학살의 목격자, 해방의 연대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국제적 평화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는 점을 선정위원회는 특히 주목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언론분야 1팀, 평화분야 1팀에게 수여하기로 하고 <방송인 오윤혜 님>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을 올해 성유보특별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수상팀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후보에 오른 모든 팀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선정사유

&

수상소감

선정사유

시민의 눈높이에서 언론상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 시선을 가감 없이 반영하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폭거는 말 그대로 ‘역대급’이었습니다. YTN을 사영화시켰고, TBS 폐국을 추진했고, KBS를 국민의 방송에서 정권의 방송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 사건’ 등 권력감시 보도를 이어가던 MBC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차별적인 중징계를 남발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KBS, MBC, YTN, TBS 공영방송 4사 노조위원장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권의 언론장악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오마이TV와 협력해 유튜브방송 ‘언론아싸’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공영방송 파괴 실상을 현장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고발하며,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론아싸 진행자 오윤혜 씨가 있습니다. 방송인 오윤혜 씨는 ‘언론아싸’ 시즌1부터 시즌4까지 진행자로 활약하며 시민의 눈높이로 정권의 언론장악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가는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때론 송곳 같은 질문으로 때론 진지한 추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대변해준 오윤혜 님의 유쾌한 진행은 엄혹한 언론탄압 상황에서 공영방송 4사 노조위원장과 시민들을 이어주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별 대응으로 기력을 소진했던 공영방송 노조는 오윤혜 씨가 이끄는 ‘언론아싸’라는 공론장에서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힘을 얻고 투쟁의지를 높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윤혜 씨는 방송 진행 외에도 ‘언론아싸’ 공개방송, ‘MBC 힘내라 콘서트’에서 폭풍 가창력의 특별공연으로 시민들과 만나며 공영방송 지키기 투쟁을 적극 응원했습니다. 정권의 부당한 사영화에 맞선 보도전문채널 YTN 구성원들의 시민주주운동 ‘와주라’ 캠페인, ‘힘내라 공영방송 시민문화제’ 등을 적극 알리며 공영방송 지키기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유보특별상 선정위원회는 ‘언론아싸’를 통해 시민의 눈으로 복잡한 언론상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솔직한 입담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 시선을 가감 없이 반영하여 소통의 문호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한 오윤혜 씨를 제10회 성유보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소감 / 오윤혜 방송인

‘우연히’ 진행하게 된 언론아싸는 언론민주화에 대한 값진 경험을 선사해줬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가수로 데뷔했고, 뒤늦게 시사·정치에 관심이 높아진 방송인 오윤혜입니다. 가수활동을 했던 10년 동안 상 한 번 받아 본 적 없는 제가 성유보특별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의아하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성유보특별상을 검색해보고 그 의미를 알게 된 뒤 더욱 제가 받을 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과분한 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 저는 대선 투표도 겨우 할 정도로 사회문제에 무관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정치가 나의 삶에 직접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와중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등장하며 관심은 참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자면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언론사에 노조가 있다는 사실도 언론아싸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엉겁결에 맡게 된 언론아싸는 제게 매우 값진 경험을 주었습니다. 언론민주화를 위해서 이토록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익보다는 사명감이 더 큰 조직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론아싸 진행자로 KBS·MBC·YTN·TBS 지·본부장님을 직접 만나면서 노조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노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강하고 조금 무서운 분들일 줄 알았는데 티 없이 맑은 모습(?)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다른 정권에서는 언론개혁을 하지 못하고, 하필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서 싸우는 게 답답해서 화도 많이 났습니다. TBS는 조례 한 줄 때문에 문단을 지경에 처했고, 강제 매각된 YTN은 사영화되어 가고, KBS에는 파우치 사장까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수 국민들의 걱정과 달리 진심으로 투쟁하는 언론노조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노조가 천직인 것처럼 투쟁을 즐기는 이호찬 본부장님, 엉뚱한 매력의 소유자 외유내강 송지연 지부장님, 화내도 안 무서운 게 약점인 사람 좋은 박상현 본부장님, 유머를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고한석 지부장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민운동가이면서 소녀 같으신 신미희 사무처장님, 사랑스러운 차세대 리더 김봄빛나래 팀장님 등 민언련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언론을 보며 알게 됐습니다. 언론은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로 대중을 선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언론이 진실을 밝히고 말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민언련과 언론노조 분들의 채찍과 노력 당부 드리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선정사유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군사점령에 맞서 평화·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집단학살과 군사점령에 맞서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본격화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학살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전쟁 종단을 요구하고, 국내외 연대 활동을 주도하며 국제 평화와 인권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행동에 참여한 229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학살의 목격자, 해방의 연대자”로서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며 팔레스타인 자유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28차례에 걸쳐 집회를 주최하고, 이스라엘 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로 국제사회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수출 중단을 촉구하고, 평화와 인권 중심의 외교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인도적 지원도 이어갔습니다.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을 통해 2,375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식료품 패키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대 활동을 넘어 직접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화모임, 언론보도 분석 강연 등을 통해 직접 시민에게 다가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도 모색했습니다.

잔인한 전쟁범죄 실상이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는 성명 활동도 벌였습니다. 전쟁 배경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강대국의 지지와 협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해자로 뒤바뀌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에서 학살로 죽어가는 아이의 존재가 삭제되기도 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연대를 넘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긴급행동은 평화, 인권, 여성, 소수자,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와 연대하여 전쟁 참상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을 높였다고 평가받습니다. 이에 성유보 특별상 선정위원회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단체가 저항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긴급행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담아 제10회 성유보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소감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229개 시민사회단체)

가자지구 참상 지켜볼 수만 없었기에 ‘뭐라도 해야겠다’, 학살중단 즉각휴전 목소리 내다

439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격화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거지, 대피소, 학교, 병원 가릴 것 없이 가자지구에 무차별적 공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굶주림 정책을 펼쳐 식량과 물, 의약품, 연료 등 필수 자원을 차단하고 팔레스타인을 절멸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 살해된 이들만 4만 5천 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0만 6천 명 이상입니다(2024년 12월 10일 기준).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이들이 모여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긴급행동)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팔레스타인 불법 군사점령을 끝내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 229곳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오직 팔레스타인의 존엄과 평화, 해방을 위해 뛰었습니다. 격화된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이스라엘의 식민지배, 불법 군사점령이라는 맥락이 있었노라 강조했습니다.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여 한국 사회에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가자지구의 학살 상황을 알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구권 국가가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하며 학살을 두둔하는 사실도 공론화했습니다. 집단학살 중단,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토론회, 직접행동, 기자회견, 기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의 해방은 연결돼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며 어떠한 법과 제도도 무용해진 상황이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억은 시공간을 넘어 다른 존재와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이고 무기보다 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해지고,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존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10회 성유보특별상은 팔레스타인 긴급행동과 팔레스타인 시민들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긴급행동에게는 따뜻한 격려를, 팔레스타인을 향해서는 연대의 마음을 건네주신 성유보특별상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시민과 함께 민주언론 개혁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1984년에서 2024년. 40년 세월이 지났건만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여전합니다. 공영방송 장악·파괴와 비판언론 탄압, 보수언론과 자본의 공론장 장악, 이에 맞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언론권력 감시와 미디어 공공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엄혹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 1984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란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언론을 지키려다 강제 축출된 동아일보·조선일보 해직기자,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과 비판언론인 숙정으로 쫓겨난 1980년 해직언론인, 진보적 출판인들 주축으로 민언협을 창립한 것입니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실현을 지향하는 지사적 언론인 중심의 민언협은 한국 사회에서 ‘언론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74년 촉발된 양심적 언론인들의 자유언론실천운동이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과 연대하고, 제도언론에 대항하는 민주언론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언협이 창립 이듬해 창간한 <말>과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새언론창간 운동으로 탄생한 국민주신문 <한겨레는> 대안언론이자 독립언론으로서 언론민주화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안언론운동을 넘어 시민언론운동으로 진화했습니다. 1991년 언론학교 개설과 언론모니터활동 개시, 1992년 대학언론강좌 개설, 1992년 선거보도감시 시민모니터 참여 등을 계기로 시민 중심 운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98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드디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란 새로운 이름과 함께 본격적인 시민언론운동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보수신문과 이들이 만들어낸 종합편성채널 편파왜곡보도 감시, 불공정 선거보도 감시, 정언유착·경언유착 등 언론윤리 감시, 과점신문의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등 언론권력 감시에 전력해왔습니다. 또한 여론다양성 증진, 편성·편집자율성 보장,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운동에 이어 총선·대선 미디어정책 제안 등 의제운동으로 활동을 확대해나갔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왜곡보도 대응,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의 역사왜곡·평화 미디어감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현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와 비판언론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을 출범시켜 언론·시민·노동·민중단체와 연대해 언론장악 저지투쟁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KBS·MBC·TBS·YTN 공영방송 노조, 진보플랫폼 오마이TV와 함께 유튜브방송 ‘언론아싸’를 개설해 시민소통을 강화하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언련이 오로지 언론민주화, 언론개혁 이정표만 보고 걸어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시민도 미디어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언련에도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인식은 촛불광장과 유튜브 등장, 미디어 개혁입법 좌절 등을 경험하면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효능감 있는 언론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구제 방안과 시민미디어기본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2022년 대선 미디어정책 의제를 제시했지만 부족합니다.

미디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운동방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언련 조직혁신과 재정안정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미디어환경 변화 등에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혁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언론개혁 의제와 입법방향, 운동방식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습니다.

1984년 해직언론인들이 모여 민주언론운동협의회란 이름으로, 1998년 시민들과 함께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름으로 꿈꿔왔던 민주언론의 실현을 위해 민언련은 3천여 회원들과 함께 우리 활동방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언론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 시민들의 요구와 함께할 수 있는 언론개혁 의제를 만들고 민언련 활동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 공영방송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미디어 공공성을 침해하는 정책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시민들과 함께 혐오차별, 역사왜곡 미디어와 콘텐츠를 감시하겠습니다.
- 시민의 미디어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나가겠습니다.
- 회원들과 함께 민언련 재정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일동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2024.12.4)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백만 촛불'로 내란의 시간이 멈춘 듯했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무런 반성 없이 수사를 거부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문회 불참 등으로 윤석열 방탄에 나서고 수구언론은 갖가지 물타기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었던 검찰은 법적 근거도 없이 내란사건을 수사하면서 복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과 미디어기구 등에 침투한 내란 동조세력은 여전합니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KBS '파우치 사장' 박장범은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 책임자 등을 제멋대로 임명하며 오로지 공영방송 축소를 목적으로 한 조직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강제로 사영화된 YTN을 '땡땡방송'으로 전락시킨 김백 사장은 부정선거 의혹 팩트체크 프로그램 제작을 지시해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두 방송은 계엄선포부터 탄핵 결정까지 노골적인 내란주범 윤석열 편들기 보도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삭제 결정'뿐 아니라 국방부 회의에 참여해 '국가비상사태 허위조작정보 대응'이란 명목의 검열방안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란동조 기관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계엄선포 2시간 전쯤 KBS 간부에게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했다는 내란가담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내란주범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외에 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시민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첫째, 내란 기간 언론과 언론관련 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그들의 내란동조 행위를 낱알이 기록하고 반드시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 둘째, 민주주의와 시민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대개혁의 길을 방해하는 수구언론의 보도행태를 꼼꼼하게 감시하겠습니다.
- 셋째,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조세력의 공영방송 장악 및 비판언론 탄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넷째,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미디어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관계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운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 다섯째,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의 엄정한 처벌과 국민주권 실현, 그리고 사회대개혁 완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일동



윤석열 불법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2024.12.4)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2024.12.4)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걸어온 길

1980년대 해직언론인 중심 ‘언론운동단체’ 설립

- 1984년 12월 19일 민주언론운동협의회(약칭 민언협) 창립
- 1985년 6월 15일 「말」 창간호 발행
- 1986년 9월 6일 「말」 특집호 발행, '보도지침' 폭로
- 1987년 5월 31일 '보도지침' 폭로 주역 김태홍·신홍범·김주언 '제1회 가톨릭 자유언론상' 수상
- 1988년 5월 15일 <한겨레신문> 창간 주도

1990년대 재야 언론운동단체에서 시민운동단체로 진화

- 1991년 11월 6일 '제1기 언론학교' 개강
- 1991년 12월 7일 모니터활동 본격화
- 1992년 2월 15일 '제1회 대학언론강좌' 개최
- 1992년 2월 20일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결성
- 1994년 12월 19일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기념토론회
- 1998년 3월 27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약칭 민언련)으로 명칭 변경
- 1999년 12월 21일 '제1회 민주시민언론상' 시상

2000년대 시민언론운동 대중성과 전문성 확장

- 2000년 9월 20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발족
- 2000년 10월 23일~11월 30일 '제1기 안티조선시민강좌' 개설
- 2001년 9월 20일 조선일보 거부 4차 선언 및 창립 1주년 기자회견

- 2001년 10월 19일 '제1회 퍼블릭엑세스시민영상제' 개최
- 2002년 1월 30일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개최
- 2002년 11월 2일 '제1기 주부방송모니터교실' 개설
- 2003년 6월 12일 '제1기 시민기자 양성을 위한 글쓰기 강좌' 개강
- 2004년 2월 20일 '언론정상화를 위한 독자감시단' 발족식
- 2004년 12월 17일 창립 20주년 기념식
- 2005년 6월 27일 신문고시 개정 촉구 기자회견
- 2006년 3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약칭 민언련)으로 명칭 변경
- 2008년 4월 28일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및 신문시장 감시단' 발족
- 2008년 6월 9일 '리얼조중동' 개통
- 2008년 7월 24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발족
- 2009년 7월 21일 ~7월 25일 언론약법 저지 100시간 비상국민행동

2010년대 공영방송 정상화 및 언론 공공성 회복

- 2010년 6월 29일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발족
- 2011년 3월 9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발족
- 2012년 3월 13일 'MB언론장악 심판·MB낙하산 퇴출·공정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발족
- 2012년 6월 21일 ~7월 13일 쫓 보자, 무한도전X2 프로젝트
- 2013년 12월 4일 '종편국민감시단' 발족
- 2014년 8월 22일 민언련 30주년 기념 '명랑운동회' 개최
- 2014년 12월 18일 창립 30주년 기념식
- 2015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1년 언론시민사회 기자회견
- 2015년 10월 8일 고 성유보 선생 1주기 추모제
- 2015년 12월 18일 '제1회 성유보특별상', '제1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 시상
- 2016년 3월 5일 '참언론아카데미' 개강
- 2016년 10월 6일 '좋은 드라마상' 시상식과 드라마 <청춘시대> 제작진 간담회
- 2016년 10월 31일 박근혜 국정파탄 관련 언론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2016년 12월 16일 '보도지침' 폭로 30주년 기념식
- 2017년 3월 24일 민언련 30년사 1 『민주언론, 새로운 도전』 출판기념회
- 2017년 7월 13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
- 2017년 7월 21일~12월 8일 '돌마고(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불금파티' 개최
- 2017년 12월 15일 『보도지침 1986 그리고 2016』 출판기념회
- 2018년 3월 22일 ~10월 12일 '민언련 포럼' 개최
- 2018년 5월 23일 '시민방송심의위원회' 발족
- 2018년 10월 5일 '제1회 마석순례'

- 2019년 3월 18일 박수환 문자 관련 조선일보 등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 형사고발
- 2019년 3월 22일 ~ 4월 8일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임 촉구 릴레인 1인 시위
- 2019년 9월 3일 '미디어의 다문화 수용성-한국 미디어는 다문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토론회
- 2019년 9월 10일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 발족
- 2019년 10월 1일 ~ 10월 14일 회원소통을 위한 설문단 <담> 1기 1차 설문조사 실시
- 2019년 12월 9일 출입처 폐지 관련 토론회
- 2019년 12월 19일 35주년 기념 집담회 '민주언론운동의 나아갈 길을 진단한다'

2020년대

시민의 미디어기본권 및 미디어 공공성 강화

- 2020년 2월 17일 '2020 총선미디어감시연대' 발족
- 2020년 3월 5일 <조선일보 100년전>
- 2020년 4월 7일 채널A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 관련 고발장 접수
- 2020년 5월 16일 민언련 5·18 광주순례 온라인 참배
- 2020년 6월 8일 보도지침 사료 기증식
- 2020년 6월 15일 채널A 간부·기자 3명 '강요죄' 추가 고발
- 2020년 7월 8일 대전MBC 성차별공대위, 방송문화진흥회에 공개서한 발송
- 2020년 7월 2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언유착 의혹사건' 의견서 제출
- 2020년 7월 28일 조선일보 관계사 부당거래 강요 등 갑질 신고
- 2020년 8월 7일 조선미디어그룹 및 사주 일가 불법·비리 의혹 전면조사촉구 기자회견
- 2020년 8월 12일 8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참여
- 2020년 9월 4일 SBS 재허가·MBN 재승인 심사관련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 2020년 9월 16일 넷플릭스 파티로 드라마 <아르곤> 함께 보기
- 2020년 10월 8일 ~ 10월 15일 제3회 마석순례 온라인 참배
- 2020년 11월 17일 방통위 MBN 봐주기 행정 처분과 종편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 2020년 12월 15일 '언론과 부동산: 가짜뉴스, 편파뉴스, 과장뉴스를 논하다' 토론회
- 2021년 1월 14일 방통위 정책 및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긴급간담회
- 2021년 1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MBN 부실 검증 국민감사청구 제출
- 2021년 2월 25일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관련 긴급토론회
- 2021년 3월 10일 '2021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출범
- 2021년 3월 17일 쿠팡의 자사 비판 보도 언론인 고소 등 전략적 봉쇄 규탄 기자회견
- 2021년 4월 12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1년 평가 토론회
- 2021년 5월 13일 민언련 5·18 광주순례 온라인 집담회 '미안마 민주화운동과 5·18 광주정신'
- 2021년 6월 8개 지역민언련 독립체제 전환
- 2021년 7월 19일 ~ 7월 31일 시민미디어강좌 '언론개혁, 포털뉴스부터 바꾸자'
- 2021년 8월 1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긴급토론회

- 2021년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2021년 10월 9일 마석순례 및 성유보 선생 7주기 추모제
- 2021년 11월 23일 시청자독자위원회 개선 모색 토론회
- 2021년 12월 14일 '독자 기만 기사형광고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 2021년 12월 16일 청암 송건호 선생 20주기 세미나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
- 2022년 1월 20일 가세연 등 혐오차별 유튜브채널에 대한 구글의 규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 2022년 1월 25일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발족
- 2022년 3월 24일 제25차 정기총회, 신임 상임공동대표에 이진순, 공동대표에 채영길 선출
- 2022년 4월 19일 '새 정부에 바란다: 언론 공공성과 시민 미디어기본권 강화를 위하여' 토론회
- 2022년 4월 28일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 감시단 발족
- 2022년 5월 14일 민언련 5·18 광주순례
- 2022년 5월 18일 차별금지법 단속농성 동조단식 참여
- 2022년 6월 15일 '지방 사라진 지방선거 보도' 평가토론회
- 2022년 9월 24일 회원의 날 서촌산책&상영회 토크 개최
- 2022년 10월 7일 TBS 지원조례 폐지안 철폐를 위한 주민청원
- 2022년 11월 9일 일본시만을 위한 국제미디어특강
- 2022년 11월 10일 10.29 이태원참사 보도 긴급좌담 '시민이 언론에 묻는다'
- 2022년 11월 12일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시민추모촛불
- 2022년 12월 7일 2022년 5·18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2022년 12월 19일 민언련 제38주년 창립기념식·시상식 개최
- 2023년 1월 11일 '제대로 된 공영방송 TBS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 2023년 2월 3일 10.29 이태원참사 100일 '2차 가해자는 누구인가' 토론회
- 2023년 2월 22일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TBS 주민조례안 시민공청회
- 2023년 3월 24일 제26차 정기총회
- 2023년 3월 31일 서울시민이 '다시' 만드는 TBS 주민조례 서명운동 개시
- 2023년 4월 5일 '언론장악, 연대와 협력의 전략' 좌담회 개최
- 2023년 4월 22일 민언련 회원의 날 서촌산책&토크특강
- 2023년 5월 2일 ~ 5월 31일 언론아카데미 '제2의 지구는 없다: 저널리즘으로 풀어내는 기후위기' 개최
- 2023년 5월 13일 민언련 5·18 광주순례
- 2023년 5월 31일 '정의연 오보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 개최
- 2023년 6월 21일 위헌적, 위법적 직무집행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 탄핵촉구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23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의결 강행 규탄 기자회견
- 2023년 7월 6일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대통령이 거부하라' 현업언론단체·언론시민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
- 2023년 7월 10일 ~ 7월 14일 여름 대학언론강좌 기본과정 개최
- 2023년 7월 11일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23년 7월 17일 헌법재판소 앞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촉구 1인 시위
- 2023년 7월 19일 ~ 7월 21일 여름 대학언론강좌 기본과정·영자기자 특화과정 개최
- 2023년 7월 24일 채영길 대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정당-언론·시민단체 간담회 참석
- 2023년 7월 28일 언론탄압 대명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규탄 긴급회견
- 2023년 8월 3일 ~ 9월 22일 공영방송 노조-시민 소통채널 유튜브 방송 '언론아씨' 시즌1

- 2023년 8월 12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실태 대시민홍보 및 TBS 주민조례 서명캠페인
- 2023년 8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저지 만민촛불집회
- 2023년 8월 23일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 장악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2023년 8월 23일 방송법 시행령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 시민사회 공동제출
- 2023년 8월 28일 "방송파괴위원장 이동관 NO" 민언련 필리버스터
- 2023년 8월 30일 제161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석
- 2023년 9월 7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Festa' 시민행진
- 2023년 9월 8일 TBS지원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기자회견
- 2023년 9월 9일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 참여
- 2023년 9월 14일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및 언론탄압 규탄
- 2023년 9월 19일 민언련 회원의 날 '언론아싸' 공개방송&특별토크
- 2023년 9월 21일 '국민이 참여하는 방송독립법 당장 처리하라!' 언론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2023년 9월 21일 '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좌담회
- 2023년 9월 23일 923 기후정의행진·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5차 범국민대회 참여
- 2023년 9월 25일 방송3법 입법촉구 릴레이 108배 돌입 언론·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23년 10월 7일 고 성유보 선생 9주기 추모참배
- 2023년 10월 26일 '오늘 우리는 류희림의 직권남용과 언론탄압에 제동을 건다' 기자회견
- 2023년 11월 1일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
- 2023년 11월 1일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 개최
- 2023년 11월 1일 공영방송 노조-시민 소통채널 유튜브 방송 '언론아싸' 시즌2 시작
- 2023년 11월 3일 '헌정사상 최초, 검찰특활비 성역을 파헤친 뉴스타파 시민단체를 만나다' 토크특강
- 2023년 11월 6일 '국회는 방송법 즉각 처리하고 이동관 당장 탄핵하라!' 기자회견
- 2023년 11월 14일 '부정사용 위법 관행 드러난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기자회견
- 2023년 11월 15일 전국민언련 이동관 탄핵 촉구 동시다발 1인시위
- 2023년 11월 15일 '검열국가로 후퇴하나!-방통위와 방심위의 가짜뉴스 앞세운 비판언론 탄압' 토론회
- 2023년 11월 16일 TBS 사례를 통해 본 공영방송 바로세우기 방향 토론회
- 2023년 11월 17일 민언련 초대 대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 2023년 11월 25일 개정 노조법, 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 시민대회
- 2023년 11월 27일 이동관 탄핵 촉구 공동행동의 날
- 2023년 11월 28일 '5·18민주화운동 악의적 왜곡·편향, 왜 계속되는가' 토론회
- 2023년 12월 12일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각계대표자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 2023년 12월 18일~12월 22일 민언련 초대 대의원선거 투표
- 2023년 12월 19일 민언련 창립 39주년 기념식 및 시상식
- 2024년 1월 3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 요구 언론·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2024년 1월 10일~4월 9일 공영방송 노조-시민 소통채널 유튜브 방송 '언론아싸' 시즌3 시작
- 2024년 1월 30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토론회
- 2024년 1월 31일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 2024년 2월 21일~4월 3일 KBS 세월호참사 10주기 다큐 방영 촉구 시민촛불

- 2024년 2월 29일 2024총선미디어감시단 발족
- 2024년 3월 7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식
- 2024년 4월~10월 [방방-곡곡 미디어 Talk] 시민미디어리터러시 전국강연
- 2024년 4월 2일 민언련, 22대 국회 6대 미디어입법과제 제안
- 2024년 4월 4일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회견
- 2024년 4월 24일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 2024년 4월 26일 제27차 정기총회, 신임 상임공동대표에 신태섭, 공동대표에 김수정 선출
- 2024년 5월 14일 총선보도 평가토론회 '언론 프레임과 포털뉴스, 민심과 어떻게 달랐나'
- 2024년 5월 15일~9월 25일 공영방송 노조-시민 소통채널 유튜브 방송 '언론아싸' 시즌4 시작
- 2024년 5월 18일 민언련 5·18 광주순례
- 2024년 5월 25일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
- 2024년 7월 11일 지키면 더 좋은 친구, MBC 힘내라 콘서트
- 2023년 7월 22일~7월 27일 여름 대학언론강좌 기본과정 개최
-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 촉구 시민사회 각계 긴급 기자회견
- 2024년 7월 31일 민언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관련 고발장 접수
- 2024년 8월 21일 '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 MBC' 시민문화제
- 2024년 9월 28일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
- 2024년 10월 8일 고 성유보 선생 10주기 추모참배
- 2024년 10월 14일 전국민언련 'KBS 낙하산 사장 반대' 5개지역 1인시위
- 2024년 10월 16일 공영방송 노조-시민 소통채널 유튜브 방송 '언론아싸' 시즌5 시작
- 2024년 10월 18일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시민문화제
- 2024년 10월 26일 민언련 회원의 날 'Saturday Journalism Live' 민언련 공개방송&특별토크
- 2024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시민홍보전
- 2024년 11월 22일 민언련 40주년 연속 토론회1 '윤석열 정권 후반기 공영방송 파괴 시나리오와 대응방안'
- 2024년 11월 22일 민언련 40주년 연속 토론회2 '공영방송 장악에 맞선 언론아싸 평가와 대안플랫폼 전략'
- 2024년 11월 23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제2차 시민행진
- 2024년 11월 29일 4·3 역사왜곡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 2024년 12월 4일 내란죄 윤석열 퇴진 범국민촛불대행진 시작
- 2024년 12월 19일 민언련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시상식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람들

(가나다순) ※ 2024년 12월 19일 기준

· 공동대표(2인)

신태섭 상임공동대표, 김수정 공동대표

· 감사(2인)

강은하(회계), 임자운(업무)

· 고문(7인)

고승우, 김태진, 박우정, 신흥범, 이명순, 임재경, 정동익

· 대의원(44인)

당연직 김수정, 신태섭(2인)

지명직 강성남, 강수곤, 김경실, 김시연, 김시창, 김진혁, 신미희, 안진걸, 이용성, 정연우, 송경재, 유승현(12인)

선출직 강선일, 공시형, 구은영, 김민경, 김봄빛나래, 김서중, 김용범, 김준, 김현식, 김형주, 박미정, 박석운,

박용재, 박해부, 염찬희, 이기범, 이병국, 이송지혜, 이용준, 이희완, 임진세, 장수진, 전미희, 정은경,

정찬미, 정혜아, 조선희, 조영수, 채도진, 최은경(30인)

· 이사회(17인)

의 장 신태섭

이 사 강수곤, 김경실, 김서중, 김수정, 김시연, 김시창, 김용범, 김현식, 박석운, 신미희, 유승현, 원혜인, 이용성,
이진순, 정연우, 채영길

· 운영위원회(6인)

신태섭 상임공동대표, 김수정 공동대표, 채영길 정책위원장, 이용성 정책자문위원장, 신미희 사무처장,
김봄빛나래 활동가

· 정책위원회(12인)

위원장 채영길

위 원 김동훈, 김수정, 김재경, 김지미, 신미희, 신태섭, 유승현, 윤성구, 이용성, 이진순, 이홍천

· 정책자문위원회(8인)

위원장 이용성

위 원 강성남, 김서중, 김종규, 문현숙, 박석운, 신태섭, 정연우

·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위원회(7명)

강우정(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문현숙(전 한겨레 기자, 민언련 정책자문위원),
이정훈(신한대 교수), 정찬필(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 최진용(전 MBC PD,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사무처(신미희 사무처장, 서혜경 활동가)

· 사무처(8인)

사무처장 신미희

참여기획팀 김봄빛나래(팀장), 원혜인·유지예·이상윤 활동가

미디어감시팀 박진솔·서혜경·최지현 활동가



“윤석열 탄핵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승리다.
위헌적 12.3 내란 직후부터 오늘까지 국회를 에워싸고 탄핵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민언련 2024.12.14 긴급성명

언론계와 진상규명
이행과 시한부!!